

정갈해서 아름다운 앞날에의 바람

다섯번째 맞는 양띠해의 첫아침에

崔勝範

전북대 국문과 교수·시인

새해의 첫아침이다. 여느 아침의 햇살과 다를 바 없는데도 이 아침의 햇살받이 창앞에 앉은 느낌은 사뭇 다르다. 무언가 좀더 정갈해지면서 조촐한 느낌이 들고, 이것저것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정에 젖게도 되고, 또한 앞날에의 바람 같은 것도 일게 된다. 하긴, 이러한 느낌이란 워낙 무딘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새해맞이에 한번쯤 가져보게 마련일 것이다. 나의 지나온 새해맞이들을 놓고 생각해 보아서도 그렇다.

게다가, 우리의 생활속속에서는 흔히 ‘띠’라는 것을 챙기고 있다. 자기가 태어난 해도 곧잘 ‘무슨 띠’로 말하기 일쑤다. 여기 ‘무슨’은 모두가 동물의 이름이다. 그 동물의 이름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 차츰 철이 들면서 그 동물의 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 해 첫아침의 느낌은 더욱 유별난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새해는, “양띠”다. 그래서 양띠로 태어난 사람이면 이 아침의 느낌이나 정, 그리고 바람도 여느 해의 첫아침과는 또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 띠의 동물에 대한 자랑 같은 것, 애정 같은 것이 새삼 일기도 하고, 그 동물의 성깔 같은 것도 좋은 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어린시절 고향 산기슭에서 풀 뜯던 양떼

나는 양띠다. 그것도 양띠 해를 다섯번째 맞이한 양띠로서의 첫 아침이다. 양에 대한 정감이 굽어들어 든다. 먼저 양을 읊은 시 한편을 되풀이한다.

“어린 양은 오늘도 머인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란한 綠衣를 산뜻이 갈아 입은 산마루 끝에는 파아란 하늘을 밟고 가는 흰 구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오늘도 아득한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들이 타고 날아가는 포근한 바람 속에는 새들의 지저귀는 즐거운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오늘도 떠가는 흰 구름을 보고 자기 엄마가 산을 넘어오지 않나 의심합니다./ 어린 양은 오늘도 새소리를 들으며 저를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를 그리워합니다.”

張萬榮의 「羊」이다.

양과 염소는 다르다. 면양과 산양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염소띠” “염생이띠”를

따로 챙기지 않듯, 여기서도 그저 양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양」의 시에서 젖을 수 있는 시각공간이 그리웁다. 나의 어린시절의 고향은 산기슭에 들이 놓인 배산입수의 농촌이었다. 어린 봄이 깃들기가 바쁘게 거의 집집마다 기르던 양은 신기슭이나 들녘에 내 매이게 마련이었다. 목은 풀도 뜯고, 이제 막 뽕조롬뽕조롬 돌는 새 풀썩도 뜯다가 마을사람들이 제 옆으로 지나기라도 하면, “땀 매뻬,” 그 턱 아래수염이 가늘게 흔들리는 소리를 짓기 일쑤였다.

저 무렵, 춘궁기를 앞둔 어른들의 시름은 어떠한지 모르나, 새봄이 찾아드는 산기슭이나 들녘의 시각공간은 저러한 양으로 하여 한결 더 아늑한 정감에 젖을 수 있었다.

양은 평화로운 동물이다. 한자에도 ‘羊’의部首에 드는 글자는 얼핏 떠올리기에 의롭고 상서롭고 자기희생적인 것을 뜻하는 아름다움이 많다는 생각이다. 아름다움 ‘美’·옴을 ‘義’·착할 ‘善’·기운 ‘義’·부끄러움 ‘羞’·무리 ‘群’·국 ‘羹’ 등의 글자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다. 「說文」에는 “羊은 祥”이라 하여 상서로울 祥자의 옛 글자로 羊을 말하였다.

사실, 양은 무리를 지어 살아도 다투는 일이 없다. 더러 염소가 뿔을 맞대어 싸울 듯한 기세를 보이다가도 이내 풀어져 먼 산 흰 구름이나 바라보다가 다시 풀을 뜯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리 ‘群’자가 ‘羊’의 부수에 들어가야 하는 뜻을 알 만도 하다.

음습한 곳을 싫어하는 것도 양의 한 성질이다. 녹녹하고 퀴퀴한 들레가 아닌, 산들산들 바람이 이는 산기슭이나 들녘이 양을 치는 적지란 것도 이 때문이다. ‘양같은 사람’치고 성질이 음흉하거나 불량한 사람이 있던가.

“羊에서 뿔이 빠지고 꼬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흔히 ‘용꿈’을 이야기하지만, ‘양꿈’의 이야기도 전한다. 물론 ‘개꿈’과는 다르다. 鄴邦이 아직 한 시골 농민의 아들로 있을 때의 이야기다. 어느날 밤이던가, 양꿈을 꾸었다고 한다. 가없이 너른 초원에서 한 마리의 양을 쫓는 꿈이었다. 이리 쫓고 저리 쫓고 안간힘을 다하여 쫓자,



양이 두 뿔이 빠지고 다시 얼마 후에는 그 알량한 꼬리마저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유방은, “羊의 글자에서 뿔이 빠지고 꼬리가 떨어지면 王의 글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유방은 뒷날 秦나라의 서왕 함양을 점령하여 漢王이 되고, 項羽를 垓下에서 쓰러뜨린 후 장안에 도읍하여 한나라를 세워, 이른바 漢高祖가 되었다. 이만하면 ‘양꿈’도 ‘용꿈’에 못지 않은 길몽이다.

동양의 고전에는 양에 관한 이야기도 적잖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왕 양의 해의 첫아침, 양의 이야기로 말문이 열렸으니, 몇가지를 들어 본다.

그 하나는 「장자」의 外篇에 있는 이야기. 두 사람 양치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두 사람 모두가 양을 잃어버렸다. 왜 양을 잃었는가의 물음에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라는 대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노름을 하는 사이에”라고 대답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들어 “양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於亡羊均也)”라고 했다. 책을

읽는 일과 노름하는 일은 크게 다르다. 그러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서는 책을 읽는 사람이나 노름한 사람이 마찬가지로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 장자가 노린 점은 또 다른 데 있다.

“세상에서는 백이·숙제를 義人이라 하고 도척은 도둑이라고 한다. 夷齊는 명예를 위해 굶어죽고 도척은 이익을 위해 죽임을 당하지만 본래의 삶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은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다. 결과는 같다고 하더라도 세상 일을 이렇듯 老莊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동계에서는 다르지 않은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라는 대답에는 듣는이로도 마음을 보태줄 여지가 있다. 책을 읽는 일은 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장자」에는 또 하나,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양치기와 같다(善養生者若牧羊然)”라는 말도 있다. 양치기는 해질녘이면 양을 우리로 몰아넣어야 한다. 이때 뒤쳐진 양에겐 채찍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틀지게 가꾸어 나가려면 언제나 소홀히 한 점에 채찍을 가하여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엔 양치기도 흔히 볼 수 없는 세상이거나, 이 말을 바꾸어, "선양생자 약독서인연(善養生者若讀書人然)"이라면 어떨까. 사실, 올바른 독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틀스럽게 바꾸어 주기 때문이다.

漢나라 사신 蘇武의 19년 총절

「열자」의 說符篇에도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하루는 楊子가 한 마리의 양을 잃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그 양을 찾고 있는 이웃사람을 보았다. 이에 양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잃고 많은 사람을 동원할 것까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 이웃사람의 대답은, "갈림길인데다가 또 길 앞의 길이 갈림길이니, 양이 어느 길로 도망간지를 알 수 있어야지"라는 것이었다.

「열자」가 이 이야기에서 노린 점은 "학문의 길도 여러 방면이면 진리를 잃어버리기 쉽다(學者以多方喪生)"를 일깨우자는 데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그 재미에 빠져서 양을 잃어버린 것은 독서인으로서 보아줄 법한 일이지만, 독서인이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한다면 보기에 딱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 武帝 때의 충신 蘇武의 이야기에 양이 등장한다. 소무는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들의 온갖 회유책에도 끝내 漢節을

지켜 19년간을 버티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소무에게 얽힌 양의 이야기는 「漢書」에 전한다. 흉노에서는 소무를 몇 차례에 걸쳐 죽을 고비에 몰아넣었으나 소무가 죽지 않자, 끝내는 북해가의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옮겨 살며 한 마리의 숫양(羝)을 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숫양에서 젖이 나오게 되면 한나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것이었다.

유전자공학이란 상상도 못했을 저때, 숫양에게서 어떻게 젖을 짜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소무는 곱힘이 없었다. 풀뿌리를 씹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도 한나라에서 받은 節을 지키며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이 한이었다. 당시 소무의 친구이던 李陵도 소무와 같이 흉노의 포로가 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흉노에 항복하여 그곳에서의 '삶'을 즐기며, 죽을 지경인 소무를 향하여, "인생이란 아침이슬과 같거니, 그대 어찌 스스로 이렇듯 고생인가(人生如朝露何久自苦如此)"라며 '낙낙한 소리'였다고 한다.

숫양이 젖을 내놓았을 리는 만무하고, 뒷날 한나라와 흉노의 사이가 풀리어, 소무는 환국하게 되었으나 19년간의 사경에서 살아남았을 뿐, 사신길을 떠날 때의 저 흉안은 옛날 길이 없고 수염과 머리털이 한올 빠짐없이 희어 있었다는 것이다.

시성 李白은 소무를 기리어 다음과 같이 읊었다.

“소무 흉노에 사로잡혀서도 / 10년간 한절을 놓지 않았네 / 흰 기러기 상림을 날아들여 / 쓸쓸히 전한 편지 한 통 / 양치기 변방에서 괴로울 뿐 / 해가 저도 돌아갈 길 없고 / 타는 목 월굴의 물로 적시고 / 굶주림 천상산의 눈으로 달랬네 / 돌아오는 길 사막은 멀고 / 하량의 헤어짐은 처창하여라 / 울면서 이릉의 옷깃을 잡고 / 서로 보고 흘린 눈물 피빛이었네(蘇武在匈奴 十年持漢節 白雁上林飛 空傳一書札 牧羊邊地苦 落日歸心絕 渴飲月窟水 飢飡天上雪 東還少塞遠 北望河梁別 泣把李陵衣 相看淚成血)”

독서인의 삶에 가해지는 양치기의 채찍

시를 읊겨놓고 보니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흰 기러기 상림을 날아 쓸쓸히 전한 편지 한 통”은 소무가 기러기 발목에 자신의 살아있음을 알린 글을 적은 배쪽을 매어 날린 일이 있었다. 한의 궁안 정원에 날아든 기러기를 쏘아 보니 소무의 글이 있어 그가 흉노에 살아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편지를 雁書·雁信이라 한 것도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하량의 헤어짐은 처창하여라”는 흉노에 항복하여 그곳에서 살게 된 이릉과 흉노에서 풀려 돌아오는 소무가 마지막 헤어진 곳이 河梁이었음에서 한 말이다. 소무와 양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새아침의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뿔겨려 한다. 새해는, 양띠의 해다. 양띠로서 이 아침을 맞이하고 보니, 앞에서도 말한 바, 여느 해의 새아침과도 다른 감회에 젖는다. 양띠로서 그 양띠 해를 다섯번째 맞이하기까지 살아온 세상살이·사람살이를 되돌아보고 앞날에의 바람 같은 것도 이야기해 보자는 심사였는데,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질호피(羊質虎皮)”라는 말을 써서 좋을 것 같다. 양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素書」에 전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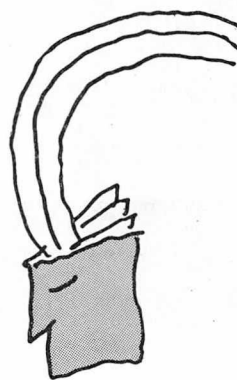
“양질호피자柔”라고 했다. 외면은 화려하고 좋으나 내용은 빈약한 것을 일컫음이다. 「노자」에서 이 ‘柔’자를 풀이하자면 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화려한 지면에 글의 내용은 빈약한 것이 되고 만 셈이니, 양질호피랄 수밖에 없다.

양의 해를 맞는 이 아침의 감상으로서 끝마무리를 하자면, 오직 우리네 사람들의 삶의 둘째가 양들이 새봄을 즐기는 저 시각공간처럼 산뜻하여지고, 개인적으로는 한 독서인으로서의 삶에 ‘양치기의 채찍’을 가해가며 더욱 오롯하고 싶다는 바람일 뿐이다.

KBS 제1라디오 방송수필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할때”
양상민 외

“미세한 물방울이 맑지를 잃고 흐리면 무지개가 되지 않는다. 「아침무지개가 말을 할때」의 이 수필집은 맑은 물방울이 모여 흰색깔을 7색의 무지개로 바꾸려는 뜻들이 모인 하늘이라 하겠다. 그것은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처나고 어지럽고 흐린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깨끗하고 꿈이 서리는 아름다운 말들이라 하겠습니까.”
—서정범 교수 (한국수필주간) 머릿말중에서—



「人生」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몸 앞... 어린 가슴엔 꿈과 낭만의 무지개로, 삶을 돌이키는 이들에겐 어린 그리움의 무지개가 되어 誠實히 삶의 진솔함을 노래한다. 달팽이·하루살이·바위·귀과 등나무·술·흙·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를 들려준다. 끝내 얼굴을 숨기기를 고집한 KBS 수필문학 문인들이 特別 남도 아닌 우리들의 숨결같은 생활 곳곳의 진솔한 삶을 정성스레 모아 가난한 현대인들의 가슴에 영동한 진리의 아침 무지개로 피어 아름다운 삶의 색으로 남고자 한다.

● KBS 제1라디오 「시와 수필과 음악사이」에 매일 밤 11:30~11:50까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 신국판/194쪽/값 3,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 출판 대림기획

275-5296·6295